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38년 묵은 감사패

중학교 교감을 하고 있던 때이다. 어느 날 교무실에 경상도 말씨를 쓰는 사람이 교감선생님을 찾는 전화가 왔다고 했다. 나이를 물어봐서 대략 말씀드렸더니 교감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데요?"

"이제혁이란 분이랍니다."

"이제혁, 기민있어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요. 전화번호 알려드리세요."

곧 전화가 왔다.

"너 주정이가?"

"예, 박주정인데 누구세요?"

"나 제혁이다, 제혁이."

"제혁이?"

"저기 경북 상주에서 내려와서 우리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맞지? 독서실에서 만났던가? 그래 맞다, 너는 전라도에서 전학 와서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나는 경북 상주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왔는데 너를 만나게 된 거지. 나는 그 학교에 가서 우리 반에서 꼴등 했어, 너는 1등이었고. 그런데 네가 어느 날 독서실 가자고 해서 내가 너를 따라갔잖아."

"그래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가 2학년 1학기 때야, 2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것 같아. 너 얼굴 좀 넓적하고 눈 똥글똥글하지?"

"맞다. 너무 반갑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몇십 년을 너를 찾았는지 알아?"

"왜 나를 찾았어?"

"너 기억 안 나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너의 반이 됐는데 너는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 내가 알아 점심을 많이 굶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점심을 가지고 가서 언젠가 너한테 도시락을 주니까 네가 안 먹데? 왜 안 먹는다고 했을까 몰라. 자존심이겠지. 근데 네가 독서실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잠을 안 자고 밤샘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계획표에다가 10분 쉬고 학교 수업 시간하고 똑같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시험공부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때 따라 했고, 네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

"글쎄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수십 년 묵은 실타래가 쉽 없이 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너는 4월에 전학을 갔지만, 우리가 3월부터 공부했고, 나 3월에는 꼴등인데 4월 월말고사에서 내가 반에서 3등으로 올라갔어. 너 따라 하기지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그래가 2학기 학년 말 쯤에는 우수표창도 받고 그랬다 아이가. 내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때 상장을 내가 갖고 있거든. 그 상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야, 너한테 보여주려고. 왜, 그런데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전라도로 전학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 난 몇십 년 동안 네가 보고 싶었어. 그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 이만큼 잘 살아."

"어디서 뭘 해?"

"응, 나 경남 양산에서 큰 회사 사장이야."

"그래 너무 잘 됐다. 근데 나는 얼른 너랑 같이 지냈던 것이 안 떠오르네."

"그래 너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굉장히 좀 뭐랄까 어른스러웠어, 자존심도 셌고. 그리고 너는 전라도로 전학을 가버렸고, 나는 그 뒤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허허 반갑다. 그런다고 이때까지 나를 찾았어?"

"그렇지, 언제 한번 보고 싶다, 내가 갈게다."

"아니야, 아니야, 나 곧 부산에 강의하러 가니까 그때 보자."

나는 부산으로 강의를 갔다.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사례 중심의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제혁이는 강의장으로 와서 조용히 내 강의를 다 들었던 모양이다. 어릴 때 잠깐 생활했던 기억만 있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상당히 큰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옛 얼굴이 남아 있었다. 제혁이는 나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근처 식당으로 가서 38년 전 점심 도시락이 아니라 거한스럽게 저녁을 사주었다. 제혁이가.

"주정아, 네가 아까 강의 때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용연학교를 만들었다며! 나 있잖아, 라이온스클럽 회장이거든. 나 여기 있는 회원들하고 여기 있는 돈 모아서 너 용연학교 후원하고 싶어."

얼마 후 제혁이는 광주에 와서 용연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의 학교 부적응 시절과 용연학교를 설립한 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져와 용연학교에 있는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지금도 간혹 장학금을 보내오고 있다. 용연학교에 강의를 온 날 제혁은 또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왔다. 감사패였다. 1976년 무신남중학교 이종원 교장선생님이 주신 성적 우수상을 복사해서 감사패를 만들어 온 것이다. 손만 대면 학교 직인의 붉은 인주가 물들 것 같은 38년 전 상장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구의 학습도움으로 우등상을 받게 되었지만 전학으로 헤어져 아쉬운 마음으로 긴직하다 38년 만에 만나게 되어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4. 9. 25.

부신남중 친구 이제혁

놀 이야기한다. 제혁이는 나보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몇십 년 전 까마득한 친구를 기억하고, 또 찾아내서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하니 사실은 제혁이가 더 잘 산 것 같다. 독서실의 동행 그리고 가난을 옆에 끼고 공부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큰 깨우침을 주었기에 평생을 기억했던 말인가. 아니 찾고 있었던 말인가.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중학교 2학년 때 독서실에 동행했던 인연이 오래 묵어서 38년 만에 감사패로 돌아왔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표창이나 모범공무원으로 훈장까지 받았다. 훈포장을 주신 대통령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님이 주신 이러한 상보다는 친구 제혁이의 감사패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회 복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피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만 내가 어릴 때는 아기 때에 거의 완벽한 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살결은 부드러웠고 건조해진 활꿈치나 발바닥에 거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드럽고 새로운 그들의 피부는 오래된 여러 상처와 굳은살이 박인 나의 피부와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람 군대의 강력한 용사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거칠어진 피부와 전투에서 생긴 상처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심각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한 하녀가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결코 맘에 들지 않는 처방이었지만 엘리사의 권유를 따랐고 그 결과 그의 병든 살은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점으로 나아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고점을 받은 후 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전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열왕기하 5:15)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이 추상적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줍니다. 나아만과 같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볼 수 있고, 시험을 견디거나 이겨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보살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갈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됩니다. 마치 보약을 먹고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에게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것과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처음보다 더 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근 나아만의 거친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른의 거친 피부와 같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된 경우를 성경에서는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 우리에 들어갔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선진들이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완벽하고 깨끗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처음의 갑절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같은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그 연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은 그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헤벌이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이 체험한 사건을 내 체험으로 100%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이 아닌 실제의 체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경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힘들지만 견디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같은 연단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안 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 없이 통과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임 석 인 목사
광주크리스찬아카데미대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3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살전5:15)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토록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삶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무요한 자기 되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패밴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패낸곳 규장출판사 / 박은주 지음)